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3.23.(화)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조사팀
2	X	0	과장 : 김동석 (02-3677-2050)
			팀장 : 오선경 (02-3677-2071)
			담당 : 김종길 (02-3677-2072)

과천시, 소속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 없어

- 11일~18일, 과천과천지구 공부상 자료와 공직자 명단 대조 실시
- 공직자에 대한 의혹 해소와 행정 신뢰도 향상 위해 조사 실시

과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소속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의심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투기의혹이 확산되자,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자 조사와는 별도로, 소속 공직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과천시 전체 공직자 672명에 대해, 과천과천지구 내 1,860필지의 공부상 자료를 직원명부와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86필지에서 직원명부와 일치하는 이름을 발견했지만, 세부 자료를 대조한 결과 과천시 소속 공직자가 아닌 동명이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과천시 공직자들이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천과천지구 토지소유에 대한 신고기간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과천시 공직

자 1명이 1필지에 대해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 왔으나, 오래전 가족이 구입했고, 이후 상속받은 토지로 이번 사태와 전혀 상관없음이 밝혀졌다.

과천시는 이처럼 전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과천과천지구 토지소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부당하거나 의심되는 사례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와 관련한 의혹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선행적 조치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